

한중경제포럼

제23-01호 2023년 4월 25일

2023년 중국 거시경제 형세 및 정책 전망

2023년 제1회 한·중 경제포럼

1. 주 제: 2023년 중국 거시경제 형세 및 정책 전망
2. 일 시: 2023. 4. 12(수) 14:00~16:00
3. 발표자: 중국거시경제연구원 쑹거룽(宋葛龙) 부원장

1. 어렵게 거둔 중국 발전의 성과

□ 2022년은 중국공산당과 중국 역사상 매우 중요한 한 해였음.

- 20차 당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의 전면적 건설을 위한 웅대한 청사진을 제시함.
- 복잡한 국제 환경과 막중한 국내의 개혁·발전·안정 임무에 직면해, 시진핑(习近平) 주석을 핵심으로 하는 중국공산당은 전국 모든 민족·인민을 단결시켜 어려움에 맞서 “코로나19 방역 통제를 유지하고, 경제를 안정시키며, 안전한 발전을 추구(疫情要防住、经济要稳住、发展要安全)”하는 요구를 전면 실행하고, 거시 조절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경제의 안정적 운행과 질적 발전의 안정적 향상을 달성하고 사회 전반의 안정을 유지하였음.

□ 중국은 2022년에 난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경제의 펀더멘털을 안정시켰고, 복잡하고 변화가 많은 환경 속에서도 2022년도 주요 발전 목표와 임무를 기본적으로 달성하여 중국경제의 강한 회복력을 보여주었음.

- 2022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3% 달성
- 도시지역 신규 취업자수 1,206만 명, 연말 도시조사실업률 5.5% 달성
-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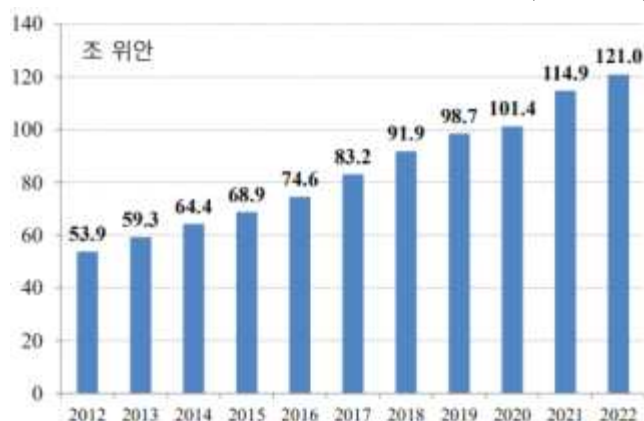
- 상품 수출입총액 증가율 7.7% 달성
- 재정 적자율 2.8%로 통제, 중앙 재정수지가 예산에 부합, 약간의 지출 잔액이 있음.
- 국제수지 균형 유지, 전 세계 주요 통화 중 위안화 환율이 상대적으로 안정을 유지
- 식량 생산량 6.85억 톤 달성, 전년보다 370만 톤 증산
- 생태환경의 질적 개선 지속

□ 지난 5년은 평범하지 않은 기간이었으나 중국의 경제·사회 발전은 세계가 주목할 만한 중대한 성과를 거두었음.

- 시진핑 주석을 핵심으로 하는 중국공산당의 지도하에 중국은 세계 격변, 코로나19 충격, 국내 경제의 하방 압력 등 여러 시련을 견뎌냈고, 예정대로 탈빈곤 임무와 샤오강(小康) 사회의 전면적 건설 임무를 달성하여 첫 번째 백 년 분투 목표를 실현하였고, 두 번째 백 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새로운 과정에 들어섰음.
- 중국 경제발전이 새로운 단계에 올라서고 경제 실력이 현저히 향상됨.
 - 국내총생산이 121조 위안으로 증가함. 5년간 연평균 성장률 5.2%를 기록. 10년간 약 70조 위안 증가하여, 연평균 성장률이 6.2%에 달함. 높은 기저 하에서도 중고속 성장을 달성하고 고품질 발전 단계에 들어섬.
 - 재정수입이 20.4조 위안으로 늘어남.
 - 식량 생산량은 매년 안정적으로 6.5억 톤 이상을 유지
 - 공업부가가치 40조 위안 돌파
 - 도시지역 신규 취업자수는 연평균 1,270여만 명에 달함.
 - 외환보유액은 3조 달러 이상에서 안정을 유지

그림 1. 중국 GDP 변화 추이 (2012~22년)

(단위: 조 위안)



- 혁신의 선도적 역할이 현저히 확대
 - 국가 전략적 과학기술 역량이 빠르게 확대됨. 국가실험실 시스템 구축을 확실하게 추진하고 국제 과학기술 혁신센터·국가 종합과학센터·국가 제조업 혁신센터·지역 과학기술 혁신센터 건설이 가속화되어 핵심기술의 “병목(卡脖子)” 문제에 대해 새로운 돌파를 실현함.

- 유인항공, 달·화성 탐사, 심해·심지(深地) 탐측, 슈퍼컴퓨터, 위성항법, 양자정보, 원자력발전 기술, 대형항공기 제조, 인공지능, 바이오의약 등 분야에서 계속 혁신적인 성과를 거둠.
- GDP 대비 R&D 비중이 2.1%에서 2.5% 이상으로 제고되고, 성장에 대한 과학기술 진보 기여율이 60% 이상에 달함.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발전 역량이 계속해서 향상됨.

그림 2. 중국 우주정거장에서 진행된
“텐궁(天宫) 클래스” 세 번째 수업 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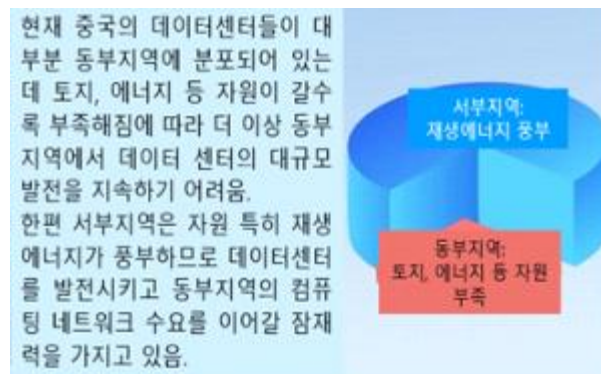


그림 3. 심해 유인 잠수정 "펀더우저(奋斗者)"호



- 디지털경제와 실물경제의 심도있는 융합 발전, “동수서산(东数西算)” 프로젝트의 전면 실시, 국가 컴퓨팅 네트워크 구축 가속화, 컴퓨팅 네트워크 중심 노드 인프라의 선도적 구축을 위한 정책지원 강화, 전통산업의 심도있는 발전,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온라인 클라우드의 디지털화·스마트화(上云用数赋智)” 수준의 부단한 향상을 이룸.
- 정보통신 인프라의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5세대(5G) 이동통신 구축에서 세계 선도적 지위 구축, 2022년 5G 기지국 88.7만 개 신규 건설, 누적 기지국 수가 231.2만 개에 이르러 세계 60% 이상을 점유함.

그림 4. 왜 동부지역의 데이터를 서부지역으로 전송해 처리하는가?



- 우위요소의 상호 보완·고품질 발전의 지역경제 구도와 국토 공간 시스템 구축이 가속화됨
- ‘징진지(京津冀) 협동 발전’의 수준이 부단히 향상되고, 일련의 중앙기업·병원·대학교 등 수도기능 분산 프로젝트들이 승안(雄安)신구에 들어서고, 톈진·허베이 항구들의 인프라가 점점 완비되며, “궤도상의 징진지(轨道上的京津

冀)”를 통해 교통이 더욱 편리해짐.

그림 5. 징진지(京津冀) 협동발전 지역공간 구조: “1개 핵심, 2개 도시, 3개 축, 4개 기능구, 여러 개 거점”



- 창장(长江) 경제벨트 내 녹색·고품질 발전의 강력한 추진, 창장 보호법의 심도있는 시행, 생태환경 문제의 해결, 오염관리 “4+1” 프로젝트의 분명한 효과 시현, 하천유입 오염 배출구의 관리감독 전문 프로젝트의 심도있는 실시, “창장 유역 중점수역 10년 어획 금지”의 확실한 실시 등을 이루어냄.
- 대만구(大湾区) 종합국가과학센터 선행시범구 건설의 가속화, 인프라 연결(联通)과 규칙의 연계 심화, 형친(横琴)·첸하이(前海)·난사(南沙)·허타오(河套) 등 중대 협력플랫폼 건설의 심도있는 추진 등을 달성함.

그림 6. 창장(长江)경제벨트



그림 7. “9+2” 도시군



- 창장(长江)삼각주 과학혁신과 산업의 융합 발전을 적극 추진
- △G60 과학혁신 회랑 △후닝(沪宁) 산업 혁신벨트 등 협동 발전의 혁신공간 배치를 부단히 최적화

- 인프라·생태환경·공공서비스 등 중점 분야의 일체화 수준을 향상
- 황하 유역 생태환경 보호, 수질 안전 보장, 문화 보호·계승·선양 등에 관한 특별 계획의 제정 및 실시
- 황하 유역 생태 보호와 고품질 발전 선행구 건설을 가속화
- 황하 생태 보호 거버넌스 5대 공약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추진함.

그림 8. 창장삼각주 지리 위치와 주요 도시



그림 9. 황하 유역



- 서부지역의 협동발전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400mm 강수량선 서쪽 지역에 대한 보호·발전이 점진적으로 추진됨.
- 동북진흥 발전과 관련한 일련의 특별실시방안이 제정·추진되고, 동북지역의 국가 식량안보 유지를 위한 안전판(压舱石)적 지위가 지속 공고화됨.
- 중부지역의 고품질 발전을 위한 중요 프로젝트 건설이 가속화되고, 전자정보와 신에너지 등 전략적 신흥산업 클러스터 발전이 가속화됨.
- 동부지역의 혁신 시범·견인 역할도 계속해서 발휘됨.

그림 10. 중국 4대 경제구역 구분



- 생태환경이 현저히 개선되고 “아름다운 중국 건설”이 중대한 걸음을 내딛음.
 - 국민총생산(GDP) 단위당 에너지 소비량이 8.1% 감소,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4.1% 감소함.
 - 지급(地级) 이상 도시의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27.5% 감소. 심각오염(重汚染, AQI 201~300) 일수가 절반 이상 감소, 전국 지표수 수질 우량 등급 비율이 67.9%에서 87.9%로 상승함.
 - 제1차 국가공원을 5개 건설하고, 등급별·유형별 자연보호지역 9,000여 개를 건설함.
- 개혁개방의 지속 심화
 - 개혁개방을 전면적으로 심화하고 新발전구도 구축을 추진하였으며, 공급측 구조개혁을 심도있게 실시하고, 행정 간소화 및 권한 이양과 방임·관리를 결합하였으며, 서비스 최적화 개혁을 부단히 심화함으로써 비즈니스 환경을 확연히 개선함.
 - “일대일로” 공동 건설을 착실하게 추진
 - RCEP 발효 및 실시를 통하여 전 세계 최대 자유무역구를 구축
 - 상품 수출입 총액이 연평균 8.6% 증가하여 그 규모가 40조 위안을 돌파하고 연속해서 수년간 세계 1위를 차지 함. 외자유치와 해외투자도 세계 선두를 차지

그림 11. 중국의 상품 수출입 금액 및 증가율 (2012~22년)

(단위: 조 위안)



- 인민들의 생활수준이 부단히 향상
 - 국민소득 증가 속도와 경제발전 속도가 기본적으로 일치하였고, 1인당 가처분소득은 연평균 5.1% 증가함.
 - 소비자물가(CPI)가 연평균 2.1% 상승함.
 - 신규 노동자의 평균 교육연수가 13.5년에서 14.0년으로 증가함.
 - 기본 양로보험 가입자는 1.4억 명 증가하여 전체 가입자 수가 10.5억 명에 달하였으며, 기본 의료보험 수준이 안정적으로 향상됨.
 - 다년간 리모델링한 판자촌 주택 수가 누적 4,200만 채 이상에 달하고, 1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판자촌에서 주택으로 이전해 편안한 주거를 실현함.

2. 발전의 불균형·불충분 문제가 여전히 두드러짐

□ 발전의 성과와 동시에 중국은 아직 개발도상국이며, 여전히 사회주의 초급단계에 처해 있고, 발전의 불균형·불충분 문제가 두드러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함.

- 외부 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세계 경제·무역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외부 억압과 억제가 부단히 가중됨.
- 국내적으로, 경제 회복의 기반이 튼튼하지 못하고, 발전의 불균형·불충분 문제가 두드러지며, 총량적·구조적·주기적 모순이 더욱 드러나고 수요 위축·공급 충격·기대심리 약화의 삼중 압력이 여전히 비교적 큼.

□ 총수요 부족의 문제가 여전히 두드러짐.

- 소비의 회복과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이 여전히 많고, 제조업 투자 확대의 기반이 튼튼하지 않으며, 부동산 투자 회복과 성장이 도전에 직면해 있고, 민간투자의 의지와 능력이 여전히 약한 편임.
- 일부 지방은 프로젝트 요소에 대한 보장을 갖추지 못하는 등의 원인으로 인프라 건설 투자에도 비교적 큰 제약을 받고 있음.
- 세계 경제 하방 추세에 보호주의 영향이 중첩되어 전 세계 무역 성장의 속도가 늦춰지고 글로벌 시장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며 수출의 안정적 성장을 유지하기 어려워짐.

□ 공급이 비교적 큰 구조적 제한에 직면해 있음.

- 과학기술 혁신 능력이 더욱 향상되어야 하고, 일부 기초 원자재와 핵심 설비 및 부품의 “병목(卡脖子)” 문제가 두드러지고 산업망·공급망에 돌파하기 어려운 부분과 막힌 부분이 아직 많이 있음.
- 식량생산 안정에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고, 일부 농산물과 농업 물자의 수급이 불균형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국제 곡물 가격이 여전히 높은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어 그 영향이 국내에 전이될 리스크가 있음. 석탄 수급이 여전히 불안정한 편이고 천연가스 공급 보장 압박이 비교적 커서, 극한 날씨 하에 에너지 안보를 보장하는 능력이 더욱 향상되어야 함.
- 에너지 사용량 증대의 압력이 비교적 크고, 에너지 소비 강도를 낮추는데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음.

□ 중점 영역에서 리스크가 중첩되어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금융 리스크가 발생하기 쉬운 시기이고,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어 국경·시장·분야를 뛰어넘는 리스크 연관성이 현저히 확대됨.
- 일부 지방은 경제 회복에 어려움이 많고 재정수지의 어려움이 두드러짐. 지방정부 자금조달 플랫폼의 채무 리스크에 대한 규범화 관리가 시급함.
- 사회 거버넌스가 한층 더 강화되어야 하고, 안전 생산 상황은 여전히 심각한 편이며, 극한 날씨·홍수와 가

물 등 자연재해의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함.

□ 문제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동시에 발전에 대한 자신감을 확고히 해야 함.

- 코로나19의 충격은 일시적이고 전반적으로 통제 가능하며, 외부 충격의 영향이 오히려 중국의 자체 혁신 속도를 촉진하였고, 중국경제가 장기적으로 호전되는 펀더멘털은 변함이 없음.
- 중국공산당의 굳건한 지도력과 역량을 집중해 큰일을 해내는 중국 사회주의의 제도우위는 경제의 안정적·장기적 운행과 사회안정을 실현하는 근본적 보장임.
- 중국이 장기간 축적한 풍부한 물질 기반과 인적자원, 완비된 산업시스템, 강대한 과학기술 역량 및 전 세계에서 가장 잠재력 있는 시장 등은 중국이 경제발전을 추진하고 외부 리스크를 막아내는 근본적인 뒷받침이 됨.
- 우리는 위험과 기회가 상존하는 가운데, 위험 속에 기회가 있고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고 판단함. 기회는 전략적이고 유연한(可塑性) 특징이 있고 도전은 복잡적·전반적인데, 유례없는 도전에 잘 대응한다면 큰 기회를 잡게 될 것임.

3. 2023년 경제업무의 총체적 요구와 주요 역점

□ 총체적 요구

- 올해는 20차 당대회 정신을 실천하는 첫해임. 시진핑 주석을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의 지도하에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 사상으로 하여, 20차 당대회 정신을 전면적이고 확실하게 실천하고, 중앙경제공작회의의 내용에 따라, 중국식 현대화를 착실하게 추진하며, 온중구진(稳中求进)의 기초를 견지하고, 新발전이념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실행하며, 新발전구도의 구축을 가속화하고,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데 주력해야 함.
- 국내와 국제, 코로나와 경제·사회 발전, 발전과 안보를 총괄하고 개혁개방을 전면 심화하며 시장의 자신감을 크게 진작시키고 내수 확대 전략과 공급측 구조개혁을 유기적으로 결부시켜 발전·취업·물가를 안정시키는 업무를 잘 수행하고 중대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방지함으로써 경제 운행의 전반적 호전을 이끌고 효과적인 질적 향상과 합리적인 양적 성장을 실현하며 민생을 지속 개선하고 사회안정을 유지함으로써 사회주의 현대화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좋은 발걸음을 내디뎌야 함.

□ 중국은 지난 3월에 열린 양회에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도시 신규 취업자 수, 소비자물가, 식량 생산량 등 2023년 주요 발전 목표를 제시함.

-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는 5% 내외로 제시함.
- 도시 신규 취업자 수 목표는 1,200만 명 내외로 제시함.

- 도시조사실업률 목표치는 연간 5.5% 내외로 제시함.
- 소비자물가(CPI) 상승률은 3% 내외로 제시함.
- 주민소득 증가 속도와 경제발전 속도를 기본적으로 일치하게 유지함.
- 대외무역의 안정 촉진 및 질적 제고를 달성하고, 국제수지의 기본적 균형을 유지함.
- 식량 생산량 목표치는 6.5억 톤 이상을 유지함.
- 그리고 GDP 단위당 에너지 소비와 주요 오염물질 배출량을 계속해서 줄이며, 화석 에너지 소비를 중점적으로 통제하고 생태환경의 질을 안정적으로 개선하는 목표도 제시함.

□ 중점업무

- 내수 확대에 주력함.
 - 소비 회복과 확대를 우선으로 함.
 - 다양한 방법으로 도농 주민소득을 증대시킴.
 - 자동차 등 대중(大宗)상품 소비를 안정시키고, 요식업·문화·관광·체육 등 생활서비스 소비 회복을 촉진
 - 정부투자자 정책 장려를 통해 투자를 효과적으로 견인, 올해 지방정부 특별채권 3.8조 위안 발행할 계획, “14·5” 규획의 중대 프로젝트 실시를 가속화하고, 도시갱신행동을 실시하며, 지역 간 우위를 상호 보완하고 각자의 강점을 살리도록 촉진함.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지역의 경제·사회 발전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더 많은 민간자본이 국가 중대 프로젝트와 취약점 보완 프로젝트 건설에 참여하도록 장려하며, 민간투자의 활력을 자극함.
- 현대화된 산업시스템 구축을 가속화함.
 - 과학기술 혁신의 산업발전에 대한 지지대 역할을 강화함.
 - 산업망 강화 및 보완 행동을 지속 전개, 제조업의 중점 산업망을 중심으로 우수한 자원을 집중시켜 핵심기술 돌파를 추진하고 혁신 활력을 충분히 자극함.
 - 핵심자원과 광물자원의 국내 탐사개발과 생산량·저장량 확대를 강화, 전통산업과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가속화, 고급화·스마트화·녹색화 수준 향상에 주력, 선진기술 R&D와 응용 보급을 가속화, 과학기술 성과의 전환을 촉진
 - 효율이 높고 원활한 물류 시스템을 구축, 디지털경제 발전 확대, 상시화 관리·감독 수준을 향상, 플랫폼경제 발전을 지원함.

그림 14. 신발전구도의 구축을 가속화하고,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데 주력



- 중대 경제·금융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방지함.
 - 금융시스템 개혁을 심화, 금융 관리감독을 최적화, 각자의 책임을 확실히 하여 지역적·시스템적 금융 리스크의 발생을 방지함.
 - 우수한 부동산 선도기업의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방지·해소, 자산부채표를 개선, 무질서한 확장 방지, 부동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촉진함.
 - 지방정부의 채무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방지·해소, 채무기한 구조를 최적화, 이자 부담을 감소, 새로운 채무 증가(增量)를 억제, 기존 채무를 해결함.

□ 정책 방향

- 적극적인 재정정책 확대 및 효율 향상
 - 필요한 재정지출 강도를 유지, 적자·특별채권·어음할인 등 수단을 조합 및 개선, 고품질 발전 과정에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지방정부의 채무 리스크 통제 가능성을 보장함.
 - 2023년 재정적자율을 전년 대비 0.2%p 증가한 3.0%로 제시; 적자 규모는 전년대비 5,100억 위안 증가한 3.88조 위안으로 계획함.
 - 세금·경비 우대정책을 최적화, 현행의 감세·경비절감 및 세금 환급·납부연장 등 조치에 대해 연장 혹은 개선, 제조업 기업, 중소·영세 기업, 개인사업자 및 특별히 어려운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 지방정부 특별채권은 전년대비 1,500억 위안 증가한 3.8조 위안을 신규 발행하며, 적절한 투자 분야 확대 및 프로젝트 자본금 사용 범위 확대, 중앙예산 내 투자, 지방정부 특별채권 및 정책성 개발 금융 수단 등의 효과적인 연계를 강화함.
 - 경제·사회 발전의 약한 고리와 핵심 분야에 대한 투입을 강화, 과학기술 돌파, 농촌진흥, 지역 중대 전략, 교육, 기본 민생, 녹색발전 등 중점 분야를 적극 지원함.
 - 재정 이전지출 시스템을 지속 개선하여 중앙의 지방에 대한 이전지출을 확대, 재정의 하부로의 전달을 촉진, 성(省)급 이하의 재정능력 분배를 최적화하여 어려운 지역과 미발달지역에 지급되게 함.
 - 재정자금 직접 조달 메커니즘을 더욱 완비, 하부조직의 “세 개의 보장(三保)”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재정규율을 엄격히 지켜 당정기관이 경제적으로 검소한 생활(紧日子)을 견지, 일반지출을 엄격히 통제, 지방정부 부채 리스크

를 확실하게 방지함.

- 온건한 통화정책은 정확하고 강력하게 실시

- 광의의 통화 공급량과 사회용자 규모 증가 속도가 명목 GDP 성장률과 기본적으로 일치하게 유지, 실물경제의 발전을 지원함.
- 금융기관이 제조업 중장기 대출 규모를 확대하도록 유도, 포용적 영세기업 대출 증가 및 범위 확대를 촉진, 과학기술형과 전정특신(专精特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 기업의 종합 용자 비용과 개인 소비대출 비용을 안정적으로 감소시킴.
- 합리적·균형적 수준에서 위안화 환율의 기본적 안정을 유지
- 금융 안정·보장 시스템을 강화, 중대 리스크 대응·처리능력을 향상

- 산업정책은 발전과 안보를 총괄함.

- 신(新)발전구도 구축을 중심으로 산업정책 실시 방식을 고도화하고 현대적 산업시스템 구축을 가속화, 전통산업 개조·고도화와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강화를 힘써 추진해 산업망의 약한 고리를 보완하는 데 주력, 탄소피크·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산업 경쟁우위를 창출
- 산업망과 혁신체인의 융합·연계를 추진, “과학기술-산업-금융”의 선순환을 추진함.
- 실물경제 특히 제조업을 확실히 견지하고 안전기반을 튼튼히 구축함.

- 과학기술 정책은 자립자강에 초점을 둠.

- 과학·기술의 발전 규칙을 지키고 과학기술 관리시스템 관리를 심화, 과학기술로 나라를 발전시키는 전략, 인재강국 전략, 혁신주도 전략을 심도있게 실시, 교육·과학기술·인재 업무를 총괄함.
- 국가 전략적 수요와 국제 경쟁에 입각하여 새로운 국가 중대 과학기술 프로젝트를 배치·실시, 신형 거국체제를 고도화하여 정부가 핵심기술 돌파 중에서의 조직적 역할을 잘 발휘, 기초연구와 전략적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
- 과학기술혁신에서 기업의 주체적 지위를 부각해 산학연의 심도있는 융합을 유도, 시장 우위를 활용해 자체적으로 혁신능력을 육성함.
- 과학기술 경비에 투입되는 재정 효율을 향상시킴.
- 인재 유치·육성·활용 제도의 개혁을 추진, 기초학과와 희소학과 개설 및 육성 촉진, 여러 유형의 인재를 효율적으로 잘 활용, 자체적으로 인재를 육성하는 질과 능력을 향상시킴.

- 사회정책은 민생 마지노선을 확실히 지킴.

- 고용 우선 전략과 정책을 심도있게 실시해 인재 유치와 고용 능력이 강한 산업과 기업의 발전을 지원, 청년 특히 대학교 졸업생의 취업 촉진 업무를 더욱 우선적 위치에 놓고, 탈빈곤 인구의 취업을 촉진하고 노동자 권의 보호를 강화함.
- 구조적 물가상승이 일부 어려운 계층의 기본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적시에 해소, 사회보장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실히 배치, 양로보험 전국 통합체계를 안전하게 추진함.
- 우수한 의료자원의 확대, 하부로의 이동 및 균형적인 배치를 추진, 농촌과 미발달 지역의 의료자원을 늘림.
- 출산 지원 정책 시스템을 완비, 양로 사업·산업을 발전,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

4. 한·중 협력은 잠재력이 크고 전망이 밝음

□ 한·중 양국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 보고 있는, 분리될 수 없는 협력 파트너임. 20차 당대회 보고서에서 “수준 높은 대외개방을 추진한다”고 제시함.

□ 더 나은 한·중 기업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세 가지 건의를 제기함.

- 20차 당대회 보고와 정부업무보고를 심도있게 연구할 것

- 20차 당대회 보고는 내용이 풍부하고, 중국식 현대화의 전략 방침과 배치를 체계적으로 설명했으며, 중국공산당이 전국 인민을 이끌고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 추진하는 정치 선언 및 행동강령임.
- 중국공산당은 전면적으로 배우고 파악하며 실행하는 데 힘쓰고, 20차 당대회에서 제기한 목표와 임무를 확실하게 실행하며, 사회주의 현대화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새로운 승리를 거두기 위해 노력할 것임. 중국공산당이 해야 할 것은 “세 개의 전면” 즉, 전면적 학습, 전면적 파악, 전면적 실행임.
- 개인적으로 기업가도 “STUDY”와 “RESEARCH”에 공을 들여야 한다고 생각함. 그 과정에서 발전의 새로운 분야와 경로를 찾을 수 있을 것임.

- 세계 과학기술 혁신의 최전선을 파악할 것

- 현재 차세대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 변혁이 빠르게 추진되고, 학과 간 교차융합 발전이 지속되고 있으며, 과학 연구의 패러다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고, 과학기술과 경제·사회 발전 간의 상호 침투·융합이 가속화되고 있음.
- 차세대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 변혁은 중국 경제발전 방식의 빠른 전환과 역사적으로 합류하여 중국이 혁신주도 발전전략을 실시하는데 소중하고 중대한 기회를 제공해 줌.
- 특히 디지털화가 경제발전에 미치는 확대·중첩·배가 효과가 갈수록 부각되고 있음.
- 기업은 세계 과학기술 혁신의 최전선과 기술 변혁의 방향을 파악함으로써 더 나은 혁신발전 방향과 방식을 모색할 수 있으며, 교류 강화를 지속하고 산업협력을 추진하여 개방·호혜 상생의 협력 메커니즘과 혁신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음.

- 우위의 상호 보완을 촉진할 것

- 리창(李強) 총리는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대외개방은 중국의 기본 국책이며, 외부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중국은 대외개방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올해 중국은 높은 수준의 국제 경제무역 규범에 맞춰 개방을 더욱 확대할 것이며, 중국 개방의 문은 더 넓게 열리고 환경은 더 나아질 것이며 서비스는 더 좋아질 것이다. 개방된 중국은 해외 각국 기업의 투자와 사업 정진을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 또한 중국은 한국과의 경제무역 관계를 심화하기를 바라며, 한국기업을 포함한 여러 나라 기업들이 계속해서 대중 협력을 확대하고 호혜 상생을 달성하기를 희망함. 특히 첨단기술 제조, 녹색경제, 빅데이터 등 분야의 협력을 심화하고 공동으로 지역 및 글로벌 산업망·공급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유지하기를 희망함.

질의응답(Q&A):

Q 1. 작년의 중앙경제공작회의와 올해 양회 내용을 보면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몇 가지 업무 방향 중에서 내수 확대와 외자 유치 부분이 특히 눈에 띈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계속해서 발전을 이루어 현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외자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가 되었고,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를 돌파하여 전면적인 "샤오캉(小康)" 사회를 건설했음. 중국에 외자가 많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 왜 외자 유치를 특별히 강조하는지? 개혁개방을 얘기할 때 일반적인 의미에서 외자 유치를 말한 것인지? 아니면 향후 중국 발전에 있어 외자 유치가 꼭 필요해서 강조하는 의미로 말한 것인지 그 배경에 대해 궁금함.

A 2. 매우 간단함. 중국은 대외개방을 기본 국책으로 하고 있음.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첫째, 기본 국책이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변함이 없을 것임. 둘째, 현재 세계의 발전은 어느 나라도 서로 분리해서 논할 수 없음. "세계는 평평하다(The world is flat)"²⁾라는 책에서도 세계화에 대해 제시하고 있고, 그 외 많은 자료에서도 경제 글로벌화를 강조하고 역글로벌화를 반대하고 있음. 셋째, 그동안의 중국 역사를 돌아보면 대외개방의 혜택을 많이 받았음. 중국이 45년 전에 비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 모두 체감할 수 있을 것임. 넷째, 인류 문명은 공동으로 창조해야 한다고 생각함. 우리는 서로 배우는 것을 통해 공동으로 발전해야지 폐쇄나 쇄국해서는 안됨. 그러므로 중국이 외자 유치를 강조하는 것은 일반적이거나 일시적인 조치가 아님. 그것은 불가능함.

Q 2. 지방정부 부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지방정부의 부채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며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해결책도 없다고 생각함. 현재 부동산 시장도 회복세가 더딘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그동안 누적된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걸로 보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가 부채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해결책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과학기술-산업-금융"의 선순환 구조가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 보면 첨단산업이나 과학기술 혁신을 위해서 막대한 자금(정책자금)이 국유 대기업에 할당되고 있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장기 정책자금의 경우는 중국인민은행에서도 강조하고 있듯이 중소·영세기업 또는 농업 쪽에 더 많이 할당하는 게 중국경제의 형평성이나 실물경제 지원을 위해서 더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사실상 과학기술 혁신을 위해서 막대한 정책자금이 국유기업에 흘러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A 2.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한마디로 답변을 드리자면 새로운 채무 증가를 억제하고 기존 채무를 효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임. 저의 발표자료 중에 보시면 채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 일부 데이터가 있음. 예를 들어 지방정부 특별채권 3.8조 위안 발행할 계획이 있음. 그리고 국가 발개위와 국가 재정부에서 매년 3월에 발표하는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에 관한 보고서가 있는데 그중에 포함된 많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앞으로 지방정부는 발상을 전환해야 하며 언제까지 토지와 주택을 팔 생각만 해서는 안 됨. 두 번째, 최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주식발행 등록제를 시행하기로 함. 많은 기업이 심사 대신 등록만 하면 상장할 수 있게 되었는데 새로 상장한 기업들 중에 과학기술 기업이 많이 있음. 과학기술과 산업간

2) 저자: 토머스 프리드먼(Friedman, Thomas L.)

융합으로 말하면 과학자, 원사, 연구기관, 대학교 등으로부터 나온 기술을 산업화시켜 기업을 만들고 발명가에게 주식배당을 하며, 기업이 이윤을 낸 후 이익 배당을 하고, 기업의 자금이 부족하면 상장할 수 있음. 자금 할당 기준에 있어서는 소유제 유형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조건에 따라 하는 것임. 국유기업이라는 이유로 자금을 더 많이 할당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 조건이 더 우월한 기업으로 자금을 할당해 주는 원칙임. 시진핑 주석은 2018년 11월 1일 연설 내용 중에 "민영기업과 민영기업가는 모두 우리 한집안 사람이다"라고 말했고 "나 본인도 민영경제가 발달한 지방에서 정무(政务)를 주관한 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리창(李强) 총리는 예전에 윈저우(温州)시 당서기를 지냈고, 차이치(蔡奇) 중앙정치국 상무위원과 허립펑(何立峰) 부총리는 각각 저장(浙江)성 타이저우(台州)시와 푸젠(福建)성 취안저우(泉州)시에서 당서기를 지냈음. 이런 지역들은 모두 민영경제가 매우 발달한 지역임. 이래도 중국이 민영경제를 차별대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공산당의 지도를 받는 것이지 국유제·사유제가 아님. 동북진흥 프로젝트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중요한 원인이 바로 민영경제와 외자기업 등 비공유제 경제의 발전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함.

Q 3. 제가 알기로 요즘 중국에서 귀차오(国潮)³⁾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고 중국 소비자들과 네티즌들이 자국 브랜드에 대한 관심이 확연히 높아졌음. 중국 정부와 지도자가 계속해서 개혁개방을 강조하고 있지만 중국 국내에서는 귀차오 열풍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음. 이런 분위기 속에서 중국에 투자한 외국기업들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 삼성 휴대폰이나 현대 자동차의 제품 품질이나 기능이 매우 우수하지만 요즘 중국 소비자들은 화웨이 등 중국 휴대폰을 더 선호하고 있고 현대 자동차도 예전에 비해 중국 매출이 감소했음.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귀차오 열풍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함. 이런 귀차오 분위기 속에서 외국기업이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 것인지? 중국 시장 진입 면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A 3. 저는 귀차오에 대해 처음 들었음. 제가 알기로 중국 여성들이 요즘에도 외국 화장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알고 있음. 저의 아들은 애플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음. 제가 화웨이 휴대폰을 사주겠다고 해도 싫다고 거절했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자신에게 가상의 적을 설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임. 어느 누구도 어느 나라의 어떤 제품을 사라고 정해 주거나 사지 말라고 제한한 적이 없으며, 제한하고 싶다고 해도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함. 사람마다 각자의 취향대로 소비한다고 생각함. 저희 집에서는 한국 쿠키밥솔과 일본 도시바 전자렌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품질이 매우 좋기 때문에 국내 브랜드로 바꿀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함. 그리고 저는 화웨이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화웨이가 많은 외국 부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중국 브랜드라고 볼 수 없음. 저는 중국이 외국 브랜드 소비에 대해 간섭하지 않으며 결코 간섭할 수도, 간섭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함. 한가지 예를 든다면, 제가 삼성 TV를 사용하는데 휴대폰 미러링 기능이 그다지 원활하지 않은 문제가 있음. 그러나 화웨이는 휴대폰과 TV 간 연결 기능이 매우 간편하고 잘 되어 있음. 물론 제가 연결선을 따로 구매해서 휴대폰을 삼성 TV에 연결하여 사용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데서 점차 소비 습관이 형성되는 것임. 그리고 요즘은 TV 화질이 4K에서 8K까지 나왔는데 소비자들은 TV를 구매할 때 고해상도, 가성비 등을 고려해 제품을 선택할 것임. 그리고 판매경로도

3) 중국을 뜻하는 '귀(国)'와 유행이나 트렌드를 뜻하는 '차오(潮)'의 합성어로, 자국 브랜드를 우선시하는 중국의 애국 소비 성향을 뜻함.

중요함. 요즘 중국에서 화웨이 전문매장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데 반해 삼성 매장은 너무 적어서 찾기 힘들 정도임.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가 운전을 못하기 때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음. 제가 2020년 창춘(長春)에서 근무할 때 주로 기업 서비스 및 비즈니스 환경 개선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음. 그때 테슬라 직원이 찾아와서 창춘에 충전기를 설치하는 데 관한 사업계획을 제안해 왔는데 저는 바로 동의하는 문서에 서명하고 사업을 추진시켰음. 그 후 창춘은 동북지역에서 테슬라 충전기가 가장 많은 지역이 되었음. 저는 그 실적으로 인해 테슬라로부터 감사편지와 감사패를 여러 번 받았음. 또한 저는 중국 여성들이 미국과 유럽 브랜드의 화장품을 선호하는 것을 알고 있음. 저도 아내의 요구대로 고가 브랜드인 라 메르(LA MER) 화장품을 구매한 적이 있어서 잘 알고 있음. 그리고 저는 한국 영화도 매우 좋아함.

Q 4. 한·중 협력 관련해서 옌타이(煙台) 한중산업단지, 웨이하이(威海) 지방경제협력시범지역, 창춘(長春) 국제협력시범구를 말씀해 주셨는데 웨이하이나 옌타이는 상무부 소관이고 유일하게 발개위가 관여하고 있는 것이 창춘 국제협력시범구임. 창춘 국제협력시범구의 어떤 분야에서 한·중간 시범사업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는지 추천이나 제안해 주실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

A 4. 지린성은 쌀이 매우 좋은데 브랜드화가 잘 되어 있지 않음. 개인적으로 볼 때 한국의 선진적인 기술을 이용해 지린성의 쌀을 가공 및 포장한 후 유명한 한·중 합자(合資) 브랜드를 만들어 중국 전역에 보급할 수 있다고 생각함. 그리고 동북지역의 식용 옥수수도 품질이 매우 우수함. 결실하기 전의 옥수수수염은 통풍 치료 효능도 있음. 한국의 선진적인 바이오 과학기술을 이용해 옥수수 관련 제품을 개발하고 한국의 성공적인 마케팅 전략과 판매경로를 활용해 양국이 모두 이득을 얻는 윈윈 협력을 달성하고 스마일 커브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함. 그리고 한국은 의료미용 산업이 매우 발달되어 있고, 창춘은 여름 피서 휴양지이자 겨울 빙설 특색 관광지로 꼽힘. 중국 사람들이 창춘에 휴가를 가서 한국의 의료미용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뷰티 관련 협력도 추진할 수 있음. 현재 상하이(上海)에 동방 뷰티 밸리(東方美谷)라고 하는 산업 브랜드가 있는데 창춘에도 한·중 협력 북방 뷰티 밸리를 구축할 수 있음. 그리고 창춘시는 국제자동차시티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한국 자동차 기업들이 창춘에 지사(分公司)를 설립할 수 있음. 그리고 제가 알기로 한국의 디지털경제, 애니메이션 산업 및 메타버스 산업 발전도 우수하다고 알고 있음. 중국 동북지역은 인구가 적고 땅이 넓으며 디지털경제나 애니메이션 산업 관련 전공의 대학 졸업생들이 많이 있음. 둥베이 지역에 이런 산업의 한중 협력 기지를 구축하여 인재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함. 그리고 한국 유명 브랜드인 정관장이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음. 사실 동북지역에도 품질이 좋은 인삼이 많이 있는데 한국의 우수한 경험을 배워 좋은 브랜드를 만들어도 좋다고 생각함. 제가 볼 때 양국의 협력 기회가 매우 많고 도처에 황금이 널려 있는데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함.